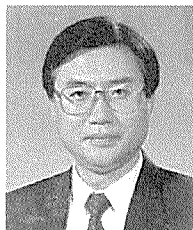


# 제조업분야의 새로운 電算化 요구

국내에서도 70년대 들어 제조업분야에 전산화도입이 이루어진 이후, 전산화효과가 어느정도 기업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문별 관리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산화도입의 가장 큰 목적인 경영정보산출에 의한 기업전략수립용 의사결정정보 획득측면에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말해 부문별 효과는 보고 있지만 전사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는 아직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전산화를 도입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경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에 연유되어 있다.

최근들어 국내제조업체들은 엄청난 대내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이같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시장제품의 변화, 기술동향의 변화, 경쟁상태의 변화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혁신에 의한 경쟁력 있는 신제품개발과 생산성향상품질향상들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건비상승에 의한 원가 압박을 극복키 위한 설비자동화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되어진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필연적으로 제품다양화에 따른 품목수의 대폭적인 증가, 설계변경의 다발, 선택 품목의 증대 등



金在焜  
(주)뉴컴퓨터서비스 회장

의 현상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또 이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정보량의 방대화와 실효성 문제를 야기시켜 부문별 개별정보체계로부터 전사적 종합정보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전산시스템은 종합경영 정보시스템이라는 바탕위에서 전략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부문, 기술부문, 판매부문, 생산부문, 물류관리부문, 공장자동화부문 등을 통털어 데이터베이스기술, 통신기술, 기능통합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실무자로부터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즉각 산출할 수 있는 CIM(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체계를 구상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적 통제중심의 체제에서 계획중심의 정보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전산화는 획기적인 전환시기를 맞고 있다.